

對蒙 戰爭·講和의 과정과 高麗의 政權을 둘러싼 環境의 變化

李命美 (Seoul 大學)

概要

몽골과의 전쟁 및 교섭, 그리고 講和에 이르는 과정은 고려 내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武臣政權이 종식되고 王權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 과정에서 보이는 高麗王權-政權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환경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전시기 고려의 외교·교섭 대상들과는 달리, 몽골은 유목국가로서의 주변과의 관계 형성 방식을 전쟁시기 부터 講和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해왔다. 30~40 년에 이르는 전쟁과 교섭의 과정에서 고려측은 이러한 요구들에 온전히 응하지는 않았으나, 그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결과물의 한 가지로 드러나는 양상이 고려 宗室들의 외교적·정치적 활동이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단위 首將 간의 직접적인 對面 및 그를 포함한 개인간·가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몽골의 관계 형성방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고려왕조체제에서 太子를 포함하여 종실들은 그 정치적·외교적 활동이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몽골과의 전쟁을 계기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고려종실들의 활동양상은 전쟁 이후에까지도 이어지며 고려-몽골관계 및 그 안에서의 고려국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고려-몽골간에 ‘완전한’ 講和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려 元宗이 무신집권자 林衍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복위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는데, 이 과정 역시 몽골과의 관계로 인한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일단을 보여준다. 기존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속에서 고려국왕들은 중국황제의 ‘冊封’을 받았으나, 이는 事後的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실제

고려국왕의 즉위와 퇴위(혹은 폐위)는 고려 내부적사정에 온전히 근거하였다. 그러나 世子(이후 忠烈王)의 請婚과 請軍이 받아들여지고 군대를 대동한 몽골 詔使가 파견되면서, 고려왕권은 ‘실질적인 책봉’과 ‘황실과의 통혼’이라는 두 가지 관계를 통해 황제권과 직결되었다. 이는 기존 국가간 관계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책봉’이 실질화하는 변화임과 동시에, 몽골에서 정치단위간 관계를 매개·유지하는 중요한 형식인 통혼이라는 가문간 관계 형성방식이 고려-몽골관계에도 작용하게 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고려왕권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한 변화는 이후 고려-원 관계속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적사건들을 발생시킨 구조적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略歷

서울大學校 國史學科에서 學士, 碩士, 博士學位를받았다. 碩士學位 論文의 주제는 「高麗·元 王室通婚의 전개와 특징」이며, 博士學位 論文의 주제는 「고려-몽골 관계와 고려국왕 위상의 변화」이다 (2016, 『13~14 세기 고려·몽골관계연구 -정동행성승상부마고려국왕, 그 복합적 위상에 대한 탐구』, 혜안). 서울대학교 歷史研究所, 奎章閣韓國學研究院 등을 거쳐, 현재는 人文學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간 관계 (동아시아적 관계형성 방식)와 개인간·가문간 관계(몽골적 관계형성 방식)가 고려-몽골관계 속에서 조율되었던 양상, 그리고 그 여파로서의 고려말 정치·사회변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原著：韓口語